

현대미술과 함께 하는 산뜻한 5월

‘2004 포천 현대미술제’ 열려 5월 1~10일, 포천반월아트홀서

새롭게 시작되는 5월, 산뜻하게 맞이하고 싶다면 이 곳에 둘러 보면 어떨까?

‘포천을 사랑하는 작가 모임’이 다음달 1일부터 10일까지 포천반월아트홀 전시실에서 2004 포천 현대 미술제를 개최한다.

‘포천을 사랑하는 작가 모임’은 포천의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결성된 단체로 포천에서 활동을 하거나 포천에 연고를 둔 작가들로 이뤄졌다.

이번 미술제에는 서양화에 정현숙, 장승택, 박영을, 이상기, 노승복, 강구원, 최진희 조각에 임승오, 김정미, 유재홍, 김영선 한국화에 조운근, 류창희 관화에 이인화, 차순호 등 15명의 작가 작품이 전시되며 양재창, 김진동 씨 등 10여명의 초대작가 작품도 함께 선보인다.

이밖에도 박이창식씨가 개막 퍼포먼스, 서예가 김진동, 장동원 씨가 가훈 써주기 행사를 펼치며 캐릭터·초상화 그려주기 등이 함께 펼쳐진다.

이번 미술제를 기획한 이경진 진산미술관장은 “이번 미술제는 그룹 개인전 형식의 전시회로 개인별 독립 부스를 만들어 작가들의 예술세계를 보다 더 잘 감상할 수 있도록 작품전시와 각종 이벤트 행사를 병행해 다양한 장르의 작품



품세계를 보여주는 아트페어(Art Fair)라며 “시민의 문화예술 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정체된 포천 지역의 문화예술은 물론 나아가 경기북부지역의 문화예술을 진흥할 수 있는 전환기적 전시회”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의 02-533-5072

문지연 기자 soma7000@naver.com

이희용의 연극이야기(91)

발성 위치에 따른 목소리



△ 이희용
포천 연극협회 회장
본지 자문위원

발성을 위치에 따라 분류하면 배에서 소리를 내는지, 아니면 목구멍에서 소리를 내는지 그 위치에 따라 ‘뱃소리’와 ‘목구멍소리’로 분류하는데 두 소리의 특징을 살펴보자.

먼저 뱃소리(깊은 소리)는 복부 근육을 압축시켜 폐 속의 공기를 힘차게 내보내면서 높아진 기압의 공기가 성대를 진동시켜 힘있고 씩씩하게 내는 소리가 뱃소리이다.

뱃소리는 웃음을 제대로 웃게 하며, 빠르고 격한 감정을 하더라도 말하기 위해 내뿜는 공기를 재빨리 보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소리의 진원지가 깊은 곳이라서 깊은 소리라고도 하는데 뱃소리는 복식호흡을 시조로 하는 발성으로 호흡의 드나들이 신속하며 복부근육의 수축이 자유로울 때 나는 소리다.

이 소리를 낼 때 건강이나 복부상대가 양호해야 정상적으로 소리를 낼 수 있는데 뱃소리는 내장기관이 건강한 상태에서 더 효과적인 소리를 낸다.

뱃소리의 특징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뱃소리는 음의 심도가 깊기 때문에 감정표현의 심도 역시 깊으며 톤이 낮고 안정되어 소리의 일정 음을 유지하고 낮은 톤이 이상적이며 논리성과 주체성을 갖춘 느낌을 준다.

또한 밖으로 터져 나오는 공기에 말(언어)을 실을 수 있어 탁 트인 목소리와 힘있는 말을 가능케 하고 복부근육의 활용으로 호흡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 말의 템포도 자유로이 조절할 수 있다.

그리고 장시간 말을 해도 힘을 유지할 수 있어 청중의 주의를 계속 모이게 할 수 있고, 표준 역할을 여유 있게 구사하고 발음이 분명하여 내용전달이 잘되며 순수한 자기 목소리가 나오며 부드러우면서 힘이 있어 듣기에 편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한 번의 호흡으로 무심코 말할 때 보통 5, 6마디(2, 3초 정도의 시간)이상 하기 힘들다. 그러나 뱃소리는 긴 시간(2, 30초)을 힘과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다. 특히 연기에서 웃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일 수 있으며 쉽게 터득되는 것이 아니다.

연기할 때 밖으로 토해내는 참 웃음을 웃을 수 있다면 어떠한 대사도 소화할 수 있다. ‘참 웃음’은 하하하란 ‘웃음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스워 죽겠다는 듯이 웃는 상태를 말한다. 웃음 따르, 대사 따르 하는 것은 안 된다.

‘참 웃음’은 바른 호흡법에 따른 발성법을 활용하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웃음은 물론이고 대사도 웃음에 흠뻑 젖어있어야 하며, 대사 다음의 웃음은 대사 속에 포함됐던 웃음의 여운으로 이어져야 한다.

웃거나 대사를 하다가 중간에 호흡이 소진되면 재미있고 즐거운 감정이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도록 재빨리 호흡을 들이마셔 보충하고 대사를 계속해야 한다. 울음이 있는 대사도 호흡이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다음은 목구멍소리인데 목구멍소리라 해서 폐의 공기를 전혀 활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공기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주로 성대 주변의 근육을 많이 인위적이고 물리적인 힘을 가하여 성대를 진동시키면서 내는 목소리라 할 수 있다.

목구멍소리는 건강이나 복부가 편안하지 않을 때 노력 없이 낼 수 있는 소리다.

호흡의 활용도가 낮아 말을 빨리 할 수 없고, 빨리 하려면 말의 마디를 한 두 개씩 빠트리거나 분명하지 않게 되고 입안에서 말이 영키는 현상이 생긴다. 목소리를 목 끝에서 내는 것 같아 소리가 얇으며 표현의 깊이가 없다.

즉, 중후함 없이 입만 가빠이 놀린다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다. 소리는 맑으나 힘이 없고 발

성에 힘을 주면 목에 힘줄(띠대)이 선다.

건강을 바탕으로 한 자연 발생적인 목소리가 자기발전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소리다. 그러나 목구멍소리는 자연성보다는 못에 힘줄을 세우면서 인위적인 조작성이 많은 소리로 순수한 인간감정의 표출이 여유롭지 못하다. 따라서 호감도가 떨어지고 설득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연기자는 이 발성법에서 탈피하지 않으면 연기 수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호흡을 많이 쓰려면 그만큼 배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체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호흡을 적게 활용한다는 것은 체력이 약하거나 장이 불편한 사람들이 쓰는 발성법이다. 목구멍소리는 큰소리를 지를 경우 목이 쉬는 경우가 빈번한 특징이 있으므로 상황에 적합한 발성을 구사하여 정확하고 깨끗한 발성을 할 때 비로소 배우의 수면은 연장될 수 있다.



△ 이관식 디자이너

동시대를 살아가는 포천의 예술인②

시각디자이너 ‘이관식’

감성의 시대 디자인으로 선도한다

오감을 적절히 활용할 때 좋은 디자인 나와
디자이너는 경영인의 입장에서 발로 뛰어야

경북대 산업디자인학과로 재직중인 이관식 교수는 ‘감성이미지를 활용한 일러스트레이션 교육방법연구’라는 주제로 발표한 박사학위 논문에서 이렇게 언급했다.

29일 경북대 교수실에서 만난 이 교수는 “감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발로 뛰어야 한다”며 “인터넷이나 책의 남들도 다 똑같이 느끼는 것이고 직접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체감해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죠”라고 설명했다. 그렇게 수많은 고뇌와 발품을 팔아 얻어낸 디자인을 소비자나 대중들이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뿌듯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물론 모험심과 도전의식, 끼 등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할 터이다. 이 교수가 끼를 발견하게 된 것은 미술을 전공하던 외삼촌 덕이다. 어릴 때부터 외삼촌을 보며 화가를 동경해왔고 자신도 모르게 미술에 심취하게 됐다. 학창시절 미술부에서 빠진 적이 없었던 이 교수에게 그림은 어느새 생활화가 되어 있었다.

디자인으로의 진로 결정은 상업계 고교에 진학하면서부터다. 상업디자인을 배우면서 디자인을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접하게 됐다.

그 후 대학에서 시각디자인학을 전공하고 산업·교육대학원을 거친 후 제약회사와 호텔 디자인실 등에서 근무했다.

“저지르는 것을 좋아한다”는 그의 말대로 8년부터 참여한 각종 공모전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83년 중앙일보사 주최 중

양광대상 소비자디자인상, 97년 한국특산품경진대회 대통령상 등을 수상했고,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에 99년부터 4회 연속 수상하는 저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지금도 아이들에게 공모전에 많이 참가하려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일명 ‘공모전 제조기’로 불리기도 하죠. 공모전은 자신에 대한 테스트로 볼 수 있으니까요”

95년 경북대학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교육자로서의 열정도 불사르고 있는 이 교수는 경북대에서 유일하게 머리를 염색한 교수다. 이는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교수가 먼저 과거를 깨트려야 학생들도 자유롭게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교의 표현이다.

직업을 가진 사람들 대부분이 직업병이 있듯이 교수도 버스 광고나, 매뉴얼, 건물 실내 디자인의 잘잘못이 눈에 띄는 일이 수두룩하다. 한 번은 술집에 갔다가 실내 디자인에 대한 조언을 해 주고 술을 공짜로 얻어먹기도 했다.

“디자인을 조금만 바꿔도 매출을 늘릴 수 있는데... 포천에서도 아직 인식이 많이 부족해요. 디자인 사무실이나 출력소 하나 없는 현실이 이런 사실을 대변해주죠.”

이 교수는 또 “좋은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이벤트가, 의사, 철학자 등 다양한 역할을 전부 소화할 수 있어야 하지만 첫 번째는 ‘경영자의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경영자의 입장에서 서서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디자인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

인터뷰 내내 자신의 직업에 대해 확실한 소신을 갖고 즐겁게 일하는 모습을 물린 풍기는 그에게서 진정 프로라는 게 무엇인지를 새삼 깨달을 수 있었다.



청명스포츠센터 수영장

최첨단 시설을 자랑하는 청명 스포츠센터는
고객여러분께서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 ◆ 회원모집
매월 20~말일(개강 매월 초)
- ◆ 가입특전
고급스포츠가방 증정
3개월 5%, 6개월 10%, 1년 15% 할인
- ◆ 셔틀버스 운행

청명스포츠센터 수영장

수영장/사우나/24시 불가마/찜질방/야외영화관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87-4 문의전화 031)541-8365/8362

찾아오시는 길